

새당본풀이 연구

양 영 자*

차 례

1. 머리말
2. 도채비신의 성격과 의미
3. 신앙민의 삶의 양식과 문화적 배경
4. 맺음말

1. 머리말

‘새당’은 구좌읍 ‘송당’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이름이면서 신당의 이름이다. 곧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마을 이름이면서, 본향당의 이름이기도 하다.

새당으로 일컬어져 온 덕수리는 남제주군 안덕면의 가장 서쪽 마을로 산방산 위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약 400년 전쯤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이 마을은 이웃마을인 사계, 동광, 서광 등과 함께 ‘즈단리’로 묶여졌었는데, 1839년 행정구역을 변경하면서 부촌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덕수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¹⁾

덕수리는 제주도의 산남 지역 중에서 유독 문화적 자산이 많이 남아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제주도부락지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있는 마을이다. 각종 민요를 비롯하여 설화와 공예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민속의 고장이다. 특히, 이형상 목사 때 부쉬 버렸다는 덕수리 광정당에 대한 설화는 제주도 전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덕수리에는 광정당 외에도 본향당인 새당과 도용남발당, 앞승물, 북문, 옷승물, 보시터승물 등 예닐곱 개의 당이 있었다. 이 많은 당들이 지금은 모두 폐당되어 남아 있는 당이 없다. 당이 많았던 만큼 당과 신앙민의 생활이 밀접했을 것이나 지금은 문헌이나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 덕수리 마을 본향당인 새당은 도채비당으로서 제주도의 도채비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고 진귀하다.

이 글은 덕수리 마을 본향당인 새당본풀이를 통하여 본풀이에 나타난 당신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을의 구비 역사에서 도채비신이 갖는 성격을 살펴보고, 당본풀이가 신앙민의 삶과 생업,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며 사회조직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는 한 코드로 삼고자 한다.

2. 도채비신의 성격과 의미

덕수리 당 본풀이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조사·보고되었다.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광정당(허두평本), 광정당(고창학本), 축일당(고인옥本), 새당(오신정本), 일뢰한집(고인옥本)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광정당(고창학本)

당신본풀이에는 공동체의 설촌과 이주, 생업과 교류, 고난 등의 체험이 반영되게 마련인데, 위의 덕수리 본풀이 중에서도 오신정本 ‘새당본풀이’²⁾는 마을 사람들의 생업과 삶의 양식, 문화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새당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새당은 뒷할으방
약근청탁 한청탁
갈매하르방 갈매할망
약근도관 한도관
약근집게 한집게
약근물이 한물이
오시장태에 노념흐던
불미독닥 세맹지
산돛 잡으민 전물계
수시떡에 수시밥에
석석간에 봉개양통을
징능념 뚝배절상
조숫물은 가민
삼대마지로 노념흐고
그 귀신이 일월로
들어사곡
해양놀이 적선반안
대정골은 성방청에
이방청에 열두 승협을 주고
그 귀신이 일월로 들어사곡
배로 가민
선양도령 아미도령
야채 참봉
새당 송재박이
불미대장침으로
들어간 귀신이우다

새당의 본향당신은 ‘뒷하르방’, ‘갈매하르방 갈매할망’, ‘세맹지’, ‘선양도

령', '아미도령', '야채', '참봉' '불미대장칩으로 들어간 귀신' 등 다양한 신명으로 불려지고 있다.

'뒤틀하르방'은 흔히 '송도채비'라 하는데, 사람에 따라 '김참봉', '김치배기', '송영감'이라 불려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이 신은 도채비³⁾신으로 관념되고 송양의 대상으로서 섬겨졌다. 과거에 불미질이 성행했을 때는 불미⁴⁾ 일을 하는 집마다 모셨던, 불미일을 수호하는 도채비신이다.

외방에 가면 덕수 송도채비라 하는데 이는 송씨 집안에서 불미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송도채비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송씨 집안에 참봉 벼슬을 했던 윗대 조상이 진도 별파전에서 도채비를 저와서 모심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어떤 이가 크게 정성껏 위하다가 안 위했더니 집에 불이 났다. 또 조를 파종하는데 바빠서 안 위하고 급히 밭에 갔더니 밭 네 귀에서 불이 훨훨 탔다. 큰일났구나 하여 집에 와보니 집 네 귀에도 불이 훨훨 타고 있었다 한다.⁵⁾

집안의 수호신으로 도채비를 모시게 된 유래가 설명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뒤틀하르방'이라는 신을 위했다. 뒤결 장독대에 깎은 돌을 제상처럼 만들어 놓아 모시는 집도 있고, 띠를 깔아 그 위에 시루를 덮어 놓고 주춧돌을 덮어 모시는 집, 소줏고리를 얹어 놓아 모시는 집 등 여러 가지 모시는 형태가 있었다. 모시는 방법은 명절이나 제사 때에 조상에 대한 본제가 끝나면 잡식을 하여 이 신을 모신 곳에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는 대죽떡(수수떡)을 만들어 그 앞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던 것을 송씨 집안에서 문중회의를 열고 의논하여 일제히 폐지하여 버렸다.⁶⁾

어느 집안이 불운이 계속돼 가면 '그 집의 도채비 잘못 위헌지 아니하

3) 제주에서는 '도깨비'를 도채비로 불려왔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함.

4) '풀무'를 지칭함. 이 글에서는 지역민이 사용해진 고유어인 '불미'를 그대로 사용함.

5) 『학술조사보고서 7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1982.

6) 현용준,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여신가, 집안이 잘 되어 가면 ‘저 집은 도채비 잘 위하여신가’ 했다고 한다. 이 신은 송씨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에서도 대개 위해 왔다고 한다.

도채비신은 흔히 ‘도채비불’이라고 일컬어진다. 불미질을 할 때 쇳물이 녹으며 펄렁거리는 모습이 도채비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채비신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잘 모시지 않으면 그 벌을 재앙으로 돌려준다.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집안이 망해버린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신앙민 사이에서는 꺼리는 경향도 만만치 않았다.

‘갈매하르방 갈매할망’은 신명이 특이하다.

‘갈매하르방 갈매할망’은 대장질을 처음 창시한 신으로 주로 정미소나 대장간 등에서 이 하르방 할망을 모셨다. 대장간에서는 ‘숯불미또’로 모신 신이 ‘갈매하르방 갈매할망’이다. 또 심방들이 집집마다 쇠동냥을 하여 이 쇠를 녹여 명도를 제작하는데, 이때도 ‘갈매하르방 갈매할망’을 위한 고사를 지낸다. 덕수리의 불미고사나 무당들이 무구 제작을 위해 행하는 고사는 모두 ‘갈매하르방 갈매할망고사’라 하였다.⁷⁾ 즉, 갈매하르방과 갈매할망은 야장신이면서 무구제작신이라 할 수 있다.

또, 본풀이에는 ‘갈매하르방 갈매할망’을 가리켜 ‘야채’, ‘참봉’, ‘불미대장 칩으로 들어간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다.

‘야차(夜叉)’는 민간에서 이르는 모질고 사나운 귀신의 한 가지인 두역시니를 말한다. ‘참봉(參奉)’은 조선 때 능(陵)이나 원(園) 또는 종친부, 돈령부 등에 딸렸던 종9품의 벼슬을 말한다. 도채비가 모질고 사나운 존재인 두역시니에 비유되며, 또한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에 비유되고 있다. 모질고 사납다는 점에서 야차와 양반은 동궐에 있으며, 감히 범접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속성상 도채비의 존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이다.

도채비신을 ‘선양도령 아미도령’이라고 한 것은 도채비신이 船神的 성격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선신은 풍어를 관장하는 신이니 어촌에 유독 도채비가 어군을 몰아다 잡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멸치잡이 때, 도채비가 멸치떼를 몰아다 잡게 해준다는 속신이 강하여 그것을 보았다는

7)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이마저 있다. 그래서 멸치잡이의 풍어를 비는 ‘그물쿠스’, 일명 ‘멜굿’ 때는 수수떡, 수수밥, 돼지머리 등 도채비가 좋아하는 제물을 차려 도채비신을 청하여 대접하는 곳을 해왔다.⁸⁾

오늘날 전해지는 민요 ‘서우젓소리’에는 ‘한라영산 장군선앙, 선을꽃은 애기씨선앙, 꿩미꽃은 도령선앙, 대정꽃은 영감선앙’ 하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등장한다. ‘대정꽃은 영감선앙’이라 할 때 대정꽃은 보습과 솔의 산지였던 모슬포와 덕수리 일대를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며, 영감선앙은 이곳을 관장하는 도채비신을 이르는 말이다.

제주도에서 도채비를 영감이라 부른 것은 도내 최고의 양반임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최고 관원인 제주목사가 정삼품의 벼슬이니 제주도에 영감 이상의 벼슬이 없는 셈이고, 도채비신은 제주목사를 구체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한 것이 된다.

도채비가 조상신이나 공동체신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풍요와 풍어를 회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지향과 일치된 때문이며, 이것은 도채비가 갖고 있는 富神的 능력에 의지하려는 신앙적 추구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풍요의 추구는 인간의 본연적 욕구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특히 고려시대 이후 중앙정부의 속박과 지배층의 가렴주구, 외적의 침입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왔던 상황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민들에게 도채비가 의지적 존재자로 모셔졌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영감놀이가 과거 제주 목민관의 폭정을 비판적으로 풍자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⁹⁾

도채비신의 정체와 면모는 ‘영감본풀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¹⁰⁾

(가) 서울 남산고을 먹자고을에서 허정승의 아들 일곱 형제 솟아나니, 큰아

8) 현용준, 앞의 책.

9) 김종대,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4.

10) 현용준, 앞의 책.

들은 백두산을 차지하고, 둘째아들은 태백산을 차지하고, 셋째아들은 계룡산을 차지하고, 넷째아들은 무등산을 차지하고, 다섯째아들은 지리산을 차지하고, 여섯째아들은 유달산을 차지하고, 일곱째아들은 제주 한라산을 차지하고

(나) 旌義 가면 영감선앙으로 놓고, 人靜 가면 도령선앙으로 놓고, 위미숲(웨미곶)가면 각시선앙으로 놓고, 선흠숲(선을곶) 황세왓 돌허리아기 씨선앙으로 놓고

(다) 썰물에는 강변에 놓고, 밀물에는 수중에 놓고, 산으로 가면 아흔아홉 골머리·영실·백록담, 물장오리·태역장오리·잔 소나무밭·돌무더기 좋아하고, 일만 잠수 삼천 어부 어장촌에 놓고

(라) 낮엔 연물 밤엔 등불에 놓고, 갓양태만 부튼 흰 갓에 옷깃만 붙은 동포에 총만 붙은 미투리, 한뼘 못한 곰방대 삼동초를 피워 물고,

(마) 수수떡, 수수밥 좋아하고, 변소의 흰 돼지, 검은 돼지 네발 짐승 좌머리 우머리 좌갈비 우갈비 열두뼈 좋아하고 시원석성한 간이나 더운 피 좋아하고 고기도 동이로 술도 동이로 받아오던 영감 참봉 야차군졸,

(바) 흠어지면 열네 동서 모여지면 일곱 동서 긴 바다 긴 소리, 짧은 바다 짧은 소리 어야두야 살장깃소리로 일천간장 풀리던 선왕 참봉이외다.

영감본풀에 나타난 도채비신은 서울에서 들어온 신이다. 서울 태생의 도채비신은 제주의 정의, 대정, 위미, 선흠에서 각각 다른 신격의 모습을 띠며, 산과 바다를 두루 좋아한다. 도채비신은 ‘망만 붙은 대패랭이’를 쓰고 ‘한뼘 못한 곰방대’를 물고 ‘깃만 붙은 베도푹’을 차려입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일반 신앙민들도 도채비가 아래는 없고 위만 있는데 벌립을 쓴다고 믿고 있다. 본풀이에는 도채비신의 식성과 다양한 면모도 드러나 있다.

장주근은 도채비가 1) 씨족의 수호신이고 2) 공동체의 수호신이며 3)

대장신이라는 점들에만 국한시켜 볼 때 도채비와 석탈해를 같은 존재로 보았다.¹¹⁾ 하나는 무신(巫神)이고, 하나는 고대 제왕이지만 본질은 같다고 본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철이 가지는 주력은 위대했으므로 야장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으며, 대장장이가 사면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보았다. 즉, 탈해는 왕인 동시에 대장장이며 무속의 신이라고 보았다. 무속신, 대장신, 공동체 수호신, 씨족수호신이라는 점에서 탈해와 도채비는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영감본풀이의 분석을 통하여 제주도의 도채비는 ① 부신, 풍어신 ② 공동체의 신 ③ 조상신, 씨족 수호신 ④ 야장신 ⑤ 역신 등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현용준은 안사인본 영감본풀이의 분석을 통하여 도채비신으로서의 영감신의 성격을 ① 富神的 성격 ② 船神·풍요신적 성격 ③ 대장(야장)신적 성격 ④ 조상신의 성격 ⑤ 당신(부락수호신)적 성격 ⑥ 병역신·재양신적 성격 등으로 파악하였다.¹²⁾ 영감신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병역신, 재양신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모시다가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모시는 방법에도 그에 걸맞는 특이한 방식이 있게 마련이라고 하였다.

문무병은 낙천리 도채비당 본풀이와 영감놀이의 근본이 되고 있는 영감본풀이의 분석을 통하여 도채비의 성격을 파악하였다.¹³⁾ ① 도채비는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한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 ② 도채비는 음귀로 야행성을 지닌다. ③ 도채비는 시끄러운 귀종으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노름도 좋아한다. ④ 도채비는 단순 솔직한 鬼類다. ⑤ 도채비는 불과 관련이 깊다. ⑥ 도채비는 부신이나 재물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⑦ 도채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말의 피나 말의 대가리다. ⑧ 도채비의 식성은 네 발 달린 짐승의 날고기와 수수범벅을 좋아하며, 술도 마신다.

구술에 의하면 마을 신앙민들은 도채비는 금방 부자가 되게 하나 잘 안

11) 장주근, 「제주도 무속의 도채비 신앙에 대하여」, 『한국민속연구논문집Ⅳ』(김택규, 성병희 공저), 일조각, 1982.

12) 현용준, 앞의 책.

13) 문무병, 앞의 논문.

모시면 금방 망하게도 하기 때문에 도채비를 모시던 집에서는 계속 모셔야 하며, 그 성미가 무서워서 꺼리는 경향이 있다. 도채비신은 위하기 시작하면 딸 뒤를 따라간다고 믿었으므로 그 집안의 딸이 시집가도 다시 도채비를 위하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인근 마을에까지 도채비에 홀린 이야기가 유독 많이 구전되어오고 있다.

새당의 도채비신은 다양한 면모를 가진 신이다.

첫째, 대장(治匠)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악근도관 한도관/ 악근집게 한집게/ 악근물이 한물이/ 오시장태에 노념흐던/ 불미독닥 세맹지’라고 하여 불미 작업에 소용되는 사물이 등장한다. 결국 ‘불미대장칩으로 들어간 귀신’인, 갈매하르방 갈매할망을 신앙하는 셈이다. 이 신은 대장신으로서 도채비신 숭배의 두드러진 예임을 알 수 있다. 즉, 새당의 도채비신은 생업 수호신으로서 야장신의 성격을 갖고 있다.

대장간에서는 무조(巫祖) 삼형제의 상징인 무구 삼명도(신칼, 요령, 산반)를 만들었는데 이때에도 간단하게나마 고사를 지내고 영감신을 모셔 대접을 하였다. 무구를 제작할 때 의례를 행하는 점이나 무신이 대장신을 겸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조상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귀신이 일월로 들어서곡’, ‘새당 송재박이 불미대장칩으로 들어간 귀신이우다’라고 한 것은 송씨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셔졌음을 말한다. 새당의 제일이 ‘즈손에 생기 맞은 날’인 것을 보면 그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셔졌음을 의미한다. 생업을 가진 집안에서 대장신인 도채비신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셋째, 당신의 성격이다. 조상신을 모시는 집안이 많아지면서 공동 제장을 마련하여 당신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덕수리의 경우도 처음에 조상신으로 숭앙되던 도채비가 새당에 모셔져 부락수호신, 생업수호신으로 숭앙하게 된 것이다. 덕수리 외에도 한경면 낙천리, 신평리, 영락리, 고산리, 두모리, 금능리 등에서도 도채비가 당신으로 모셔져 온 예가 있다.

넷째, 재앙신·치병신의 성격을 띤다. ‘대정골은 성방청에 이방청에 열두 송협을 주고 그 귀신이 일월로 들어사곡’ 이라 하여 그 신을 잘 대접

하지 않으면 무서운 보복을 하는 재앙신이며 치병신임을 알 수 있다. 도채비신은 잘 먹으면 잘 먹은 값,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하여 심술을 피우게 되면 양반의 횡포 이상이다. 영감신인 도채비신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춤 잘 추고 놀기 좋아하는 호색신으로 잘 대접하지 않으면 패가망신하게 마련이다.

다섯째, ‘해양놀이 적선반은’ ‘선양도령 아미도령’이라고 하여 해양신의 성격을 나타내는 요소가 등장한다. 제주도의 도채비는 船神이며 풍어신의 성격을 가져 영등굿, 잠수굿, 뿔굿, 풍어제, 뱃고사 등에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영감본풀이를 가리켜 ‘선양참본’이라고도 하는데, 새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명이 영감본풀이에 등장하는 신명과 동일하다. 새당이 한때는 이 마을 뒤편의 바다가 있어서 주민들 가운데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도채비신이 선신, 풍어신의 성격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듯 새당의 도채비는 다양한 신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임이다. 대장신, 조상신, 당신, 재앙신, 치병신, 선신, 풍어신 등 집안에 따라, 곳에 따라 다른 기능의 신으로 숭앙되었다.

생업수호신인 대장신인 동시에 대장장이 집에 들어가 그 집안의 조상신 즉, 가업수호신으로 좌정하기도 하고, 부락의 생업을 수호하는 당신으로 좌정하는가 하면, 흉험을 주고 치료하는 재앙신·치병신의 성격, 해양신의 성격 등을 두루 지니고 있다. 가지각색의 신격의 결합이 씨족, 조상, 공동체의 관념, 사회조직을 표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만하면 새당의 도채비는 꽤 복합적인 멀티플레이어 신으로서 민간신앙과 깊숙하게 유착되어 온 신임을 알 수 있다.

도채비신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의 신으로 숭앙된 것은 문화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새당의 신이 복합성을 띠게 된 것은 새당의 문화가 복합성을 띠고 있었음을 말하며, 그것은 ‘불미’라는 특수한 생업에 기반을 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신앙민의 삶의 양식과 문화적 배경

새당 마을은 옛날부터 술을 만들고 보습을 만드는 불미 마을로 알려져 왔다. 특히 대정은 술의 산지로, 덕수리와 조수리는 보습의 산지로 알려져 온 대장장이 마을이었다.

도채비신이 제주에 들어온 유래를 설명하는 낙천 스록낭므들당 본풀이¹⁴⁾를 보면 신앙민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배경을 좀더 이해할 수 있다.

- 가. 서울 사는 진짜 아들 삼형제가 부랑하여 동네 처녀들의 몸을 더럽히니 만주 '드른들거리'로 쫓겨나 귀양정배 되었다.
- 나. 만주 '드른들거리'에 사는 가난한 송영감이 삼형제 도채비를 만나 그들이 좋아하는 돼지를 잡고 수수떡 수수밥을 하여 전물제를 지내니 송영감은 삼시에 천하거부가 되었다.
- 다. 도채비를 사서 부자가 된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송영감은 병이 들어 이올어 갔다.
- 라. 송영감은 피를 내어 "세경 넓은 밭을 문밖에 떼어다 놓으면 데리고 살고 그렇지 못하면 쫓아버리겠다."는 제의를 하자 이에 응한 도채비들은 열심히 밭을 떼어 문밖에 갖다 놓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 마. 이를 핑계 삼아 송영감은 도채비를 나무에 묶고 네 토막으로 쳐 죽여서 쫓아버리고 백마를 잡아 문밖에 말가죽을 잘라 붙이고 집 좌우로 돌아가면서 말피를 뿌리고 백마의 고기를 걸어 도채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 바. 네 토막으로 잘려 쫓겨난 죽은 도채비는 열두 도채비가 되어 천기 별자리를 짊어 점을 치고 각기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위로 삼형제는 서양 각 나라 기계플무(治匠神)이 되고, 그 아래 삼형제는 일본 가미산 맛주리 대미리 공원 청도 청돌목(철도, 철도목) 철공소, 방직회사 초하루 보름 제의를 받은 신이 되고, 그 아래 삼형제는 서울 호적계로 좌정하였다. 막내 삼형제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흉년이 들어 장사하러 온 제주 선주의 아들에게 "나를 잘 사귀면 부귀영화를 시켜준다."하고 제주 절섬

14) 1982년 문무병 채록, 한경면 조수리 여무 조술생본.

에 실어다 줄 것을 부탁한다. 두 형제의 허락을 받은 세 도채비는 제각기 일월조상이 되었다.

사. 도채비 삼형제는 모두 도민이 모시는 일월조상이 되었는데, 한 가지는 갈라다 뱃선왕을 모시고, 한 가지는 갈라다 산신일월또(목축,수렵신)으로 모시고, 한 가지는 갈라다 숯불미또(야장신)로 모시게 되었다.

당신본풀이는 당신이 탐색 과정을 거쳐 특정한 신당에 좌정하여 단골로부터 제의를 받게 된 내력을 풀이하는 이야기다. 좌정지를 탐색하는 과정에는 단골들의 조상이 생활 터전을 찾아 이동하던 내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당신 본풀이는 마을의 구비역사라 할 수 있다¹⁵⁾.

낙천리와 덕수리가 보습의 산지이며 솔의 산지였다는 마을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 본풀이는 불미질의 유래를 설명하는 신화이며 문화의 이동과정을 설명하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만주로 쫓겨났다가 다시 제주도에 입도하여 조상신으로 숭앙받게 된 도채비신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 있다. 각지로 흩어진 도채비신들이 야장신이 되어 대접을 받고, 제주도에 들어온 도채비신들은 각각 뱃선왕, 산신일월또, 숯불미또로 좌정하게 되는 내력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낙천리의 당신은 '송씨하르방'이고 송씨가 이 마을을 설촌했으며 송씨의 생업은 솔불미였다. 이 씨족은 덕수리로 이주하여 현재 낙천리에는 거의 없고, 오히려 덕수리에서 송씨가 세력을 뻗었다. 생활터전을 선점하기 위한 사람들의 경쟁의 체험은 신들의 처소경쟁으로 반영되며 이것이 본풀이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낙천리 신앙민들은 농사가 끝나 조상에게 드리는 공회로 '뫓잡아 전물제'를 드렸는데, 돼지를 통째로 잡아 도채비신에게 공회를 하는 전물제는 새당인 덕수리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낙천리의 신앙이 새당에 그대로 전파되어 수용된 셈이다. 이러한 의례야말로 신앙민들의 삶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15)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그런데, 낙천리 마을 사람들에게 스투낭모들당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 당은 낙천리가 아니라 조수리에 있다고 답한다. 지리적으로는 낙천리 지경에 가까우나 단골들은 조수에 살고 있는 신앙민들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래서 새당본풀이의 내용이 “조숫물은 가민/ 삼대바지로 노념하고/ 그 귀신이 일월로/ 들어사곡”이라고 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구좌읍 덕천리 본향당 본풀이에도 송씨하르방 송씨할망이 등장한다. 이는 덕천리 사람들도 덕수리처럼 도깨비신을 숭상했다는 것이며, 신앙민들의 생업과 생활방식도 연관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체오름 앞 물 올라 모신 당은 구엄장 신엄장 송씨 할으방 송씨 할망 불 잘 놓는 정포수 개 잘 따리는 정술이 질이 바른 마세총 대강늑 소강늑 노리 사슴 소돏 맞쳐다가 술은 빼여다가 구엄장 신엄장이레 드리고 가죽은 풀고 피기는 먹고 하다 남은 건 분육을 하고 또 가운데 중또 올래에 일되또 그 당은 매도 일곱 잔도 일곱 체물도 일곱 정월 초사흘 이월 초사흘 덕천 손당 만민백성은 그날 고스롭니다. 그 다음엔 즈손들이 많이 벌어지었습니다.¹⁶⁾

2004년 덕수리 송영화 옹의 구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주도무형문화재 불미공예 보유자 송영화 옹(1922년생)에 의하면, 자신의 8대조부터 새당에서 불미를 시작하여 대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8대째 불미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한경면 낙천리와 더불어 구좌읍 덕천리도 흠이 좋아서 불미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어른들을 따라 덕천리까지 불미작업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구술하였다.

덕수리의 새당본풀이는 낙천리 스투낭모들당 본풀이나 덕천리 본향당 본풀이와 더불어 신앙민의 삶의 양식과 문화, 공동체함을 반영하는 신화들이다.

외래의 씨족이 제주에 입도하였을 때 신앙은 생업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어느 집단이나 조상신은 있었을 것이며 제의를 위해서 본풀이는 형성되기 마련이다. 특별히 중시되었던 직업이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16)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연구소, 1968.

직업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있었던 생업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의 수호신에게 제를 드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본풀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본풀이에는 전승집단의 공동체험이 반영된다.

제주도의 본향당이 농어촌 사회의 생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그 신앙의 중심에 씨족의 조령(祖靈)이나 씨신 등의 신격과 선조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당신들을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덕수리에는 모두 13군데의 불미 마당이 있었다. 이 불미 마당이 한꺼번에 가동된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10명의 인원이 필요한 디딤불미 마당이었을 경우에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불미작업에 전념하던 시절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800년대 초 덕수리가 즈단리의 한 마을이었을 때 즈단리 호수가 59호에 불과했던 것으로 미루어 이 당시에는 덕수리 사람들이 모두 불미작업에 몰두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불미가 잘 되면 밧을 사고, 불미가 안 되면 밧을 풀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불미는 새당의 중요한 생업 수단이었다.¹⁸⁾

덕수리에서 불미가 성행했던 것은 황토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황토를 판 자리에 물이 고여 물통이 생겨날 정도였다. 지금은 없어져버린 ‘군물’은 불미작업에 쓰일 황토를 파낸 자리에 물이 고여 이루어진 것이다. ‘굴루이 생겨난 물’, 즉 덩으로 생겨난 물이라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새당본풀이에 나타나는 ‘악근도관 한도관/ 악근집게 한집게/ 악근물이 한물이/오시장태에 노념흔던/불미독닥 세명지’에서 ‘도관, 집게, 오시(씻물을 받아 나르는 용기)’ 등은 불미 도구이며, ‘악근(작은), 한(큰), 불미독닥(혼자서 하는 불미작업)’은 불미의 조건을 설명하는 말들이다.

신앙민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불미작업의 실태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미작업은 형태에 따라 ‘독닥불미(뚝뚝불미)’, ‘청탁불미’, ‘불판불미(발판불미)’, ‘드딤불미(디딤불미)’로 구분한다.

17) 진성기, 『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소, 1966.

18) 2004년 2월 송영화(83세) 용 구술.

독닥불미는 한 사람이 혼자서 작업하던 것으로,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독닥불미질을 하면서 불렀던 독닥불미질소리는 제주도내 여러 마을에서 확인되어 채록·보고되었다. 청탁불미는 네 사람이 함께 불미작업을 하던 것으로 '토불미'라고도 한다. 널판불미는 10인용 불미이며, 드딤불미는 40여명이 협업하던 것으로서 최근의 작업 형태이다.

저독안으로	느리는물은	저 독안으로	내리는 물은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무췌늑은	췌물이어	무쇠 늑은	췌물이어
요내등곳으로	느리는물은	요 내 등으로	내리는 물은
오작육부젓인	넛물이어	오장육부 젓은	넛물이어
젧대장네	물이나듭서	젧대장네	물이나 드십시오
대말치에	소말치에	큰 말 들이 솔에	작은 말 들이 솔에
어허 혼놀래	숨디리자	어허 한 노래로	숨 들이킵시다
뚝디리고	숨디리영	뚝 들이고	숨 들이키면서
날존날은	날마다하네	날이 좋은 날은	날마다 하네
괘롭기가	짝이웃네	괘롭기가	짝이 없네
꾸벅꾸벅	즐지말앙	꾸벅꾸벅	즐지 말고
오늘일은	적군님네발에	오늘일은	역군님들 발에
세고약함이	거기나타나네	세고 약함이	거기서 나타나네
어허 혼놀래	늣디놀자	어허 한 노래	높게 놀자
초패나막패나	패출려들소	첫 패나 마지막 패나	패차려 드십시오
숨이차서	못하것네	숨이 차서	못하겠네

(*후렴: 아아아아 에에에헤요, 2행부터 표기 생략)

불미노래는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만들기 위해 불미질을 하며 불렀던 노동요다. 이 노래¹⁹⁾는 디딤불미소리 중 일부이다. 별건 췌물이 늑아내리는 불미마당에서 일을 하자니 등으로는 넛물 흐르듯 땀이 흐른다. 날이 좋은 날은 쉬지 않고 불미작업을 하다 보니 때로는 꾸벅꾸벅 즐기기도 한다. 불미패는

19) 『제주도부락지Ⅱ』

불미질을 교대해가며 협력하여 작업하였음을 사설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노래에 나타나는 ‘젯대장’이라는 명칭은 불미작업의 종사자로서 불미작업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암시한다.

불미작업의 물주인 불미마당의 주인은 ‘원대장’이라 했다. 원대장은 불미마당의 책임과 통괄을 맡은 임자다. 버금으로 불미마당을 총괄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술불미는 ‘바숨대장’이, 보섭불미는 ‘알대장’이 총괄한다. ‘바숨대장’은 술틀의 본을 뜨고 술불미를 하거나 바숨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고, ‘알대장’은 보섭불미를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실제로는 이들이 불미작업을 총 지휘한다. 불미를 차리는 사람을 ‘직대장’,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대장을 ‘독대장’, 용광로에 불을 때는 사람을 ‘불대장’, 쇠물을 틀에 부어 넣고, 쇠가 녹은 물을 빼 주는 사람을 ‘젯대장’이라 한다. 이 외의 기타 잡일과 불미작업에 따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질떡대장’이라 한다. 질떡대장은 불미마당의 온갖 심부름과 관리, 솥에 물을 뿌린 후 갈아서 만든 질떡을 틀에 바르는 역할까지 한다.

종사자의 명칭만으로만 살펴보아도 불미작업에 대략 몇 사람이 동원되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불미일은 정성이 많이 들고 힘이 드는 협동노동인 까닭에 공동직능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신앙에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과거에 새당에서 불미일이 성했을 때는 꼭 불미코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 불미작업을 하는 전날 자정을 기하여 불미터에서 불미고사를 지냈고 당제도 성행했다.

새당에서 행해져 오던 불미제는 두 가지가 있었다. 보습을 만들기 위한 불미일 때 드리는 ‘보습불미제’와 술을 만들기 위한 불미일 때 드리는 ‘술불미제’가 있었다. 불미일 자체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허사가 되어 버리는 일이므로, 불미가 잘 되게 하고 일꾼들을 잘 먹이기 위해 업주인 물주는 불미대장에게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 크게 불미제를 행하게 했다.

불미제 때 제상에는 돼지머리, 소고기, 밤, 대추, 유지, 사과, 배, 메, 고소리 닭은 술 등이 젯상에 올려진다. 보습불미 때는 메, 갯, 해어 등을 차

려 간단하게 제를 행했으나, 솟불미일 때는 희생으로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한다.²⁰⁾ 제를 지내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택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바람을 만드는 기구인 발동기 밑을 정결하게 한 다음 제를 지냈다. 불미제에는 부정 탄다고 하여 남자만 참석했다. 지방을 쓰거나 축을 고하는 일은 없지만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 정성이 있는 물주는 집에서 따로 제를 지내기도 했다. 현재도 불미작업을 할 때는 정성을 다하여 불미제를 지내고 있다.

토불미소리²¹⁾ 속에는 불미작업의 구성과 진행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아 혼놀래 놀아보저	아 한 노래 놀아보저
어허~ 서화디아	어허~ 서화디아
적군님네 건설도하다	역군님들 건설도하다
요런 적군에 요까짓일 허기	요런 역군에 요까짓 일 허기
성인덜 얼마 가실소냐	맘인들 얼마나 가실소냐
저도간 앞으로 느리는 물은	저 독안 앞으로 내리는 물은
무쇄녹은 냇물이어	무쇠 녹은 냇물이어
요내 가슴으로 느리는 물은	요내 가슴으로 내리는 물은
오장육부 젖인 물이로다	오장육부 젖은 물이로다
아 혼놀래 높디놀자	아 한 노래 높게 놀자
요만이 불어도 무쇄가 안 녹을까	이만큼 불어도 무쇠가 안 녹을까
아 대말치에 소말치에	아 대말치 소말치에
닷되떼기 석되떼기	닷되떼기 석되떼기
아 적군님네 다 지쳐간다	아 역군님들 다 지쳐간다
아 우리네패가 건장하야	아 우리네 패가 건장하야
날이면 날마다 요일을 흐고	날이면 날마다 이 일을 하고
물로 이룬 요내 남은	물로 이룬 이 내 남은
흐를흔께 다지치는가	하루 한번에 다 지치는가
초패나 막패나 패출려놓고	첫 패나 막 패나 패 차려놓고

20) 『제주도부락지Ⅱ』.

21)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2.

아 교대시간이 근당하네
 아 혼놀래 새굴로아
 남숫으로 노질라하네
 산에강 낭해오기 무서와서
 일본사람은 금허기로 상통베께
 돌아나고
 어허 혼놀래 높디놀자
 어허 놀래 새굴르면
 그만하면 만족히뉘다
 어 땀들이고 숨디리면
 전폭적으로 놀아나보자
 어 혼놀래 숨디려시메
 높디놀고 물어가자
 청탁소리 운간에 뜨게
 대자오치 불미널에
 석자오치 화지깃대에
 자두치 양주머리
 부서질까 염려말아
 까여질까 걱정말아
 어 혼놀래 새굴르면
 밤낮없이 요질을흐면
 열두넙바께 안주니 요셋말로
 아오라시 허구나

(*후렴: 어허~ 서화디야, 2행부터 표기 생략)

아 교대 시간이 가까워오네
 아 한 노래 사이 두어(사이 어긋나게 하여)
 나무 숫으로 노 저으려 하네
 산에 가서 나무 해오기 무서워서
 일본 사람은 금허기로 상통밖에
 달아나고
 어허 한 노래 높게 놀자
 어허 노래 사이 두면
 그만하면 만족하게 된다
 어 땀 들이고 숨 들이키면
 전폭적으로 놀아나보자
 어 한 노래 숨 들이켰으니
 높게 놀고 물어가자
 청탁소리 구름 사이에 뜨게
 대자오치 불미널에
 석자오치 화지깃대에
 두자어치 양주머리
 부서질까 염려말아
 깨질까 걱정 말아
 어 한 노래 사이 두면
 밤낮없이 이 일을 하면
 열두 뉘밖에 안 주니 요셋말로
 아오라시하구나

이 노래를 통해 전문적인 불미장인들이 만들어 낸 술의 종류도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두말띠기(두말 들이 크기의 술), 말치(한 말 들이 술), 다두태기(닷 되 들이 술), 서(두)태기(석 되 들이 술), 잔철·옹졸이(가장 작은 술), 빈철(후라이펜의 일종) 등 다양했다. 이들도 모두 전문화·분업화의 산물일 터이다.

노동요는 일의 힘듦으로 인해 생활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불미노래에서도 불미나 불어 먹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불미질은 생계의 수단이지만 한편으론 그만두고 싶은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서로 교대하면서 밤낮없이 일을 하지만 노동량에 비해 품삯이 적었던 생활상도 엿보인다. 그런 속에서도 노래를 '새굴라' 가면서 청탁소리가 구름 사이에 뜨게 하려는 여유와 시적인 멋도 드러난다.

불미작업은 덕수리 사람들의 생업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틀이었다. 그리고 불미작업은 불미소리라는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생산해냈다. 똑딱불미, 토불미, 발판불미, 디딤불미 등에서 불려졌던 노동요들은 제주도에서는 보기 드문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특히, 불미소리는 유독 이 덕수리에서만 전승되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노래의 사설 속에는 불미라는 독특한 생업과 사람들의 애환,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서 새당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4. 맺음말

제주도 사람들은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본향당에 의존하여 생활해왔고, 마을 본향당의 본풀이가 그들의 경제, 문화, 생활을 유지하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마을의 당신본풀이에는 전승집단의 공동체협력이 반영되며, 가지각색의 신격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씨족, 조상의 관념을 표현하는 요소와 마을의 내력, 생업,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적 배경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마련이다.

새당본풀이를 통해서 덕수리의 생업이었던 불미작업의 유래와 사람들의 삶의 양식, 문화적 배경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새당본풀이는 새당 신앙민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이다.

새당의 신앙민들은 불미라는 특수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숭앙하면서 삶을 개척해왔다. 새당본풀이에 등장하는 도재비신은 복합적인 당신의 성격을 가지면서 덕수리 신앙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새당본풀이에 나타나는 불미작업은 덕수리 사람들의 생업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틀이었다. 특히 불미작업에 대해서 유달리 이 마을에서만 불미노래가 전해지고 있다. 똑딱불미, 토불미, 발판불미, 디딤불미 등에서 불려졌던 노동요들은 제주도에서는 보기 드문 귀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현재 덕수리 불미공예가 제주도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고 있으나 불미소리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속현장의 총체적 복원과 보존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연구소, 196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부락지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학술조사보고서 7집』,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국어교육과, 1982
『한국민요대전』, 문화방송, 1992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종대,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국학자료원, 1994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장주근, 「제주도 무속의 도깨비 신앙에 대하여」, 『한국민속연구논문선Ⅳ』 (김택규, 성병희 공저), 일조각, 1982
- 진성기, 『남국의 무속』, 제주민속연구소, 1966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